

코로나 사흘만에 다시 400명대...전국 곳곳서 집단감염

수도권 287명·광주 35명·대구 19명 등...확진자 늘어날 가능성 높아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백신접종·개학 앞두고 방역 고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를 기록, 증가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설 연휴(2월11~14일) 가족모임을 고려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어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지속적 감소와 재확산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과 전방지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26일 발표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직전일(356명)보다 84명 늘면서 지난 21일

(41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선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4명, 경기 143명, 광주 35명, 대구 19명, 인천·경북 각 18명 등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21명→561명→448명→416명→332명→356명→440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53명꼴이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7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있다.

설 연휴 직후인 1주일 전 600명대까지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만에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보통 주간 환자발생 패턴으로 보면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이를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주말·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24~26일 사흘간은 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추이를 지켜보아 정확한 유행 양상을 알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불안한 국면에 더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내주 초중고 개학을 고려하면 방역의 고삐를 더 죄거나 최소한 현행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피로도를 생각하면 현행 조처를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빠르면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집단감염 '보험사 콜센터' 적막
24일 오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 라이나생명 콜센터 사무실 내부가 텅 비어있다. 이날 오전까지 콜센터 관련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5개 구청장, 5·18재단,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5월 광주 정신으로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이윤섭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5월 광주 정신으로 미안마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안마 국민들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심은 곧 천심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민심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80년 5월, 광주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처럼, 미안마 국민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안마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도 미안마 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재단 네

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미안마에서 진행 중인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사태 방지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회와,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미안마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도 이날 연명으로 미안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미안마 군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안마 군부가 11월의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민주인사들,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을 통해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즉각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1호 접종자'는 누구?

시·도, 오늘 공개...접종 당일 컨디션따라 대상자 바뀔수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1호 접종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5일 정부의 국내 첫 접종자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 1호 접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미 1호 접종자를 확정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해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첫 백신접종은 요양·정신병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는다. 광주는 148개소 1만 351명, 전남은 327개소 1만7741명이 1차 접종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호 대상자를 결정하긴 했지만, 접종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접종 순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가 접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대로 최우선 접종 대상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자가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첫 번째" 접종자나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나 인터뷰가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첫 접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 백신 맞고 숨지면 4억3천만원 지급

접종 피해 국가보상 마련...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

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사,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739만 5200원(산정기준: 월 최저임금액×240개월)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연합뉴스

투자 하실분 수도권

**경매 입찰/낙찰물건
경매 직전 부동산
급매로 나온 부동산
20년 노하우**

최선규.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락 주거2중

(1) **담양읍 양락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학 고

**학교법인설월학원(동일미래과학
고등학교, 설월여자고등학교) 전
이사장이신 故 雪月 千哢春님께서
향년89세, 2021년 2월 24일 숙환
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삼
가 알려 드립니다.**

빈 소 : VIP 장례타운
(광주 서구 매월동 323-6번지) 201호

발 인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전 8시

장 지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선영

연락처 : 062-650-7955, 062-650-6355

2021년 2월 25일

학교법인설월학원장례위원장 최 증 환 올림

합병 및 주권재출 공고

1. 2021년 02월 15일 주식회사 석산건설 "갑"과 주식회사 새종건설 "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회사가 합병하여 "갑"은 "을"의 관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하여 이 있는 재산사는 본 공고 제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 등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회사 중 "을"은 상기 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합병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그 소유권 전부를 이 공고 일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주식이 반환됩니다.

2021년 02월 25일

1. 합병대상인 주주
-갑 : 최근블록프로그래밍 연합03-10-10호
석산건설 연합03-04-1호
-을 : 포항시립 연합2019-02-08호
포항시립 연합2019-14-06호
시상물류관리업 연합2019-29-03호

2. 합병 예정일 : 2021년 03월 27일 경

3. 이해관계인 의견 주권재출의 기한 : 2021. 02. 25 ~ 2021. 03. 26

4. 제출장소
주 소 : 주식회사 석산건설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원로 172
대표이사 : 천 원 석 (061-472-0900)

주 소 : 주식회사 새종건설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부평길 36
대표이사 : 고 수 경 (061-472-09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김장길(531112-XXXXXX)
· 최후주 소 : 광주 북구 삼정로 7, 205동 507호 (두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방 김장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2월 24일로 신청하여 2021년 2월 15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25일

· 상속인 : 1. 김대성(590629-XXXXXX) 광주 북구 삼정로 7, 206동 103호 (두암동, 주공아파트)
2. 김경철(610814-XXXXXX)
3. 김동주(651115-XXXXXX)
- 청구인 2, 3의 주 소
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84(우산동)

· 신고기간 : 2021. 2. 25 ~ 2021. 5. 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대성의 주 소

산행안내

2월 28일(일)

▲ **광주Ki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할배산"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추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3월 7일(일)

▲ **광주Ki산악회** 3월 7일(일) 포항&해파랑길 18구간·아가리밭·해오름전망대&곤륜산 176.9m, 오봉산 178m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추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